

## 사실과 진실

(출20:16)

1. 오늘은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에는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1.1. (관찰) 히브리 산파들이나 라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칭찬합니다.

- 출1:19,20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 )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 )
- 수2: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 )
- 히11:31 ( )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 )

1.2. (관찰) 반대로 자기(혹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 신19:18,19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 )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 ) 너희 중에 ( )을 ( )하라
- 시27: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 )와 ( )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1.3. (나눔1) 성경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정죄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거짓말은 믿음의 용기로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은 잘 못해’라는 말로 포장하며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의 폭력이 주는 아픔과, 반대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언어가 가진 생명의 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2. 예수께서는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요8:44). ‘거짓’이 ‘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은 교묘하여 활동 방식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악에 속한 거짓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아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2.1. (관찰) 거짓은, 불의와 악에 ‘침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레5: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 ) 증인이 되어 그가 ( )이나 ( )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 )를 저야 할 것이요 그 ( )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2. (관찰) 거짓은,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창3:1,4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 )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 )

● 마26:61 이 사람의 말이 ( ) 하나님의 성전을 ( ) 사흘 동안에 ( ) 하더라 하니

**2.3.** (나눔2)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아첨의 말을 쏟아 내거나 그들의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파라오 앞에서라도 진실을 말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요 8:44)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요8:45-47).

이 시대는 지금 ‘거짓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말해야 하는 진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진리 그 자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 삶을 위한 기도

하나님. 법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승리는 잠깐이며 진실과 진리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고 히브리 산파와 라합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